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93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27)구두리·가문이·젯망오름  
오름마다 찾아든 봄의 전령들

입력 : 2004. 04.30. 00:00:00



제주시와 남제주군 남원을 잇는 도로인 남조로변에는 많은 오름들이 밀집돼 있다. 이 가운데 한라대맥 구조선상에 위치한 오름으로 표선면 가시리 지경의 구두리, 가문이, 젯망오름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세 오름은 북군 조천읍과 남군 표선면 경계지점에 위치한 오름들로서 남조로 동쪽에 이웃해 있다. 탐사팀은 3월 27일 이곳을 찾았다.

## ◇구두리

행정구역상 조천읍 교래리와 표선면 가시리의 경계가 산체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다. 마사회 소유의 경주마육성목장 남녘 울타리를 따라 5백m쯤 들어가면 끝나는 지점에 오름으로 향하는 소로가 있다. 정상까지는 20분이면 족하다.

오름의 모양새가 개의 머리와 비슷하다 하여 구두리, 이를 한자로 대역하여 구두악(狗頭岳)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뺨뺨히 자란 나무로 인해 그 형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전사면은 자연림과 조림되어진 삼나무·측백나무·소나무 등이 울창하게 자라나고 있다. 정상에서의 조망은 나무로 인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름 사면에는 봄꽃들이 치장을 하고 있다. 현호색, 참계별꽃, 산자고, 새끼노루귀, 개감수 등 꽃이름 만으로도 고운 들꽃들이 만발하다. 강영제 탐사위원은 “봄철 오름탐사길에는 수많은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 유독식물도 많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천남성, 박새도 그중 하나다”고 말한다. 박새는 그 모양새가 새우란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탐사에 동행한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름조사단장 현원학씨는 구두리오름에서의 즉석 간담회에서 ‘한라산체의 정의’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질’(부산대학교 대학원·지질학과)을 주제로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간담회에서 해발고도로 볼 때 구두리오름 일대를 한라산체의 하단부라고 해석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목마장의 최상부 지역과 현재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요존국유림의 경계 지역인 해발고도 500m에서 1950m에 이르는 제주도의 중심부’를 한라산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제주도가 한라산이요,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는 종래의 인식으로부터 인문지리와 자연과학

적 접근을 통한 한라산의 정의가 선행돼야 보존, 관리, 이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게 현씨의 주장이다.

#### ◇가문오름

구두리오름에서 목장길을 따라 10분남짓 걸어 가문오름에 이르렀다. 숲이 우거져 검게 보인다 하여 가문·거문(검은의 제주어)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한자로는 흑악(黑岳)이라고 하고 있다.

남조로를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붉은오름과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구두리, 남동쪽으로는 첩망오름이 이웃하고 있다. 가시나무가 많아 오르고 내리는데 어려움이 많다. 오름의 전사면은 이름에 걸맞게 여러 종류의 자연림이 울창하다. 삼나무들도 아름답기로 자라 삼나무도 잘만 키우면 훌륭한 경제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정상 부근 남동사면에는 묘 한 기가 자리잡고 있다. 신영대 탐사위원은 “가문 오름은 기운생동하는 지맥을 숨긴 동쪽의 신비한 오름으로 풍수학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오름은 남서쪽으로 침식되어 얇게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침식지점은 마치 작은 계곡을 연상케 한다.

#### ◇첩망오름

가문오름을 지나 평지대 삼나무 조림지를 건노라면 어느새 또다른 오름에 와 있음을 느낀다. 정상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오름의 모양새가 알갱이를 걸리게 하는, 첩망이 바닥에 달린 원통 모양의 도구 ‘체’의 망처럼 생겼다 하여 첩망오름이다. 표선면 가시리의 ‘가시천’을 바라보는 형국이라 하여 천망악(川望岳)이라 붙여졌다고도 한다. 원형의 굴부리 정상 부근에 묘 한 기가 있는데 이곳에 이르면 탁 트인 조망 때문에 대륙산과 소록산 등 동부지역 오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름의 높이가 낮고 삼나무숲으로 우거져 길가에서는 식별이 잘 안 되는 나지막한 오름이다.

[전문가 리포트]구두리오름에서 만난 새끼노루귀

새끼노루귀(*Hepatica insularis*)는 미나리아제비과 노루귀속(genus *Hepatica*)에 속한 여러해살이 풀로서 유독한 식물이며, 노루귀속은 전 세계에 10여 종이 있는데 모두 북반구 온대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새끼노루귀 외에도 노루귀와 섬노루귀가 자라고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잎이 노루의 귀를 닮아 노루귀라 이름이 붙여진 이 꽃은 대개 백색과 분홍, 자주색과 연분홍 또는 백색 바탕에 분홍색의 줄무늬가 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피어난 꽃인데에도 색깔도 다양

하다. 이렇게 야생화 중에는 토양과 습도나 빛의 영향으로 꽃 색깔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새끼노루귀'이다.

식물의 카멜레온 새끼노루귀 꽃은 여러해살이풀로 한라산 전역의 비옥한 낙엽수림 밑에 분포하며 3~4월에 잎이 나오기 전에 꽃줄기가 나오며 그 줄기 위에 1송이 꽃이 달린다. 잎의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흰색 무늬가 있고, 3갈래로 갈라지고 끝이 둔하다. 높이가 10cm까지 자라고 뿌리줄기는 옆으로 비스듬히 자라며 잎은 모두 뿌리에서 돌아나고 긴 잎자루가 있다.

새끼노루귀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체가 작아 몸체에 비하여 꽃대를 높게하여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으로 종자를 최대한 전파시켜 번식을 꾀하는 식물이다. 노루귀속은 전부터 약재로 많이 이용되어진 식물인데 한방에서는 뿌리가 달린 전초를 건조시킨 것은 장이세신(獐耳細辛)이라 하며 진통(鎮痛), 진해(鎮咳), 소종(消腫)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식물이다. 이 식물은 97년에는 일본에 대량 수출되어 식물이 국가 외 유출된 사례로 꼽히는 정향나무와 더불어 종 유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사례로 꼽힌다.

<강영제 탐사위원(난대산림연구소 / 식생분야)>

[전문가리포트] 玉門形의 남록엔 태극의 조화

가문이 오름은 기운생동하는 지맥을 숨긴 동쪽의 신비한 오름이다. 시각적으로 특징있는 오름은 아니지만 동쪽 지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붉은오름에 이어 기운을 갈무리하는 곳으로 풍수학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곳이다.

구두리오름과 붉은오름, 쳃망오름을 사이로 은밀한 듯 자태를 드리운 가문리오름은 서거문리오름, 성불오름과 같이 내면에 형기(形氣)와 이기(理氣)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오름중의 하나이다.

정상부에 올라서면 동북쪽으로 오성체(五星體)의 토형(土形)인 일자문성(一字文星)의 구두리오름이 완만한 자태로 다가오고, 북서쪽으로는 붉은오름이 비스듬히 금형(金形)으로 풍만한 몸체를 자랑한다. 동남쪽으로는 쳃망오름과 물영아리, 여문영아리 오름이 가문리오름을 감싸며 가까이서 멀리서 조용한다. 비슷한 높이로 전후좌우에서 용호(龍虎)가 환포하고 남록쪽으로 백호의 기세가 길게 고저의 변화를 이루며 좌선하면서 나가는 곳에 파구(破口)를 형성한다. 북서쪽에서 지맥을 일으켜 남동으로 용두(龍頭)를 일으키고 남쪽으로 가지를 틀어 북쪽에 의지하여 남록의 옥문형(玉門形) 지세를 타고 묘지군들이 천지인(天地人) 삼단계로 남쪽 곳곳에 안식을 정하고 있다.

구두리오름은 북동으로 개구된 부봉형(富峰形)의 형태로 보는 방향에 토형(土形)과 금형(金形)으로 다가오는 겸체(兼體)이다. 평평한 들판에서 몸체를 길게 늘어트리며 바야흐로 하늘로 날아 오르려는 천마등공형(天馬登空形)으로 무언의 염원을 표출하고 있는 형상이다.

구두리오름, 가문리오름, 쳃망오름, 붉은오름이 형제처럼 이웃하며 음양의 연화단계인 사상(四

象)의 이치로 결합되어 생태계의 역학 구조선이며 동쪽을 잇는 자연환경의 하나로 잘 보호되어야 한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 풍수분야)>

[사진설명]오름의 복수초군락. '봄의 전령' 복수초가 오름자락에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